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대비... LCC, 신규노선 확보 쟁탈전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日 미야코지마 단독 취항 티웨이, 오세아니아 대륙 노선 확대 제주항공, 몽골 신규 노선 만들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회복된 해외 여행 수요 확보를 위해 신규 노선 확보를 통한 수익선 개선으로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발생할 지각변동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다만 LCC 업체간 경쟁 격화로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내 주요 LCC4개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3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394억원, 1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LCC 매출 1위를 기록한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45.4% 증가한 1조7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2019년 1조3840억원보다 3400억원 높은 수치다. 영업이익은 169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매출 1조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81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매출 8904억원과



제주항공 항공기.

영업이익의 159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119.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4개 회사 모두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코로나19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빠르게 증가한 해외여행객의 영향이 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나간 여행객 수는 2272만명으로 2019년 대비 79% 수준을 기록했으며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다. 그동안 억눌렸던 보복 소비로 인해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당시 치솟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LCC업계는 이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신규 노선 확보를 통한 여행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진에어는 인천과 일본 미야코지마를 오가는 노선에 단독 취항한다. 진에어는 오는 5월 29일부터 해당노선에 189석 규

모의 B737-800을 투입해 주 5회 일정으로 운항한다. 미야코지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다. 푸른 바다와 따뜻한 날씨가 어우러져 '일본의 몰디브'라고 불리며 최근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4월 1일부터 호주의 버진오스트레일리아와 인터라인 협정을 맺고 오세아니아 대륙 노선을 확대한다. 인터라인이란 여러 항공사가 운항 중인 노선을 하나의 티켓으로 연계해 판매하는 것이다.

티웨이항공은 인천-시드니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버진오스트레일리아의 항공권을 티웨이항공과 연계한 국내 여행사 플랫폼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드니공항에서 호주 국내선 및 주변 국가를 편리하게 환승해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시드니와 연결된 구매가 가능한 노선은 브리즈번, 멜버른, 골드코스트, 퍼스, 케언즈 등 호주 주요 9개 도시 그리고 뉴질랜드 퀸스타운과 피

지섬이다.

몽골 노선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열린 한국-몽골 항공회담에 따라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의 하늘길도 확대됐다. 양양과 제주공항에서 각각 몽골로 가는 신규 노선을 만들고 기존 운항하던 부산-대구-청주-무안 등 지방공항에서의 1회당 200석 이하 기종 제한을 없앴다. 몽골 노선의 경우 2022년 LCC에 운수권이 배분되면서 32만명을 기록하다 지난해 65만명까지 증가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한 LCC 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두 회사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을 양도받게 될 경우 매출은 3000~4000억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LCC 업계 매출 1위도 노려볼 수 있다.

합병 주체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합병이 최종 승인되면 통합 절차를 밟는다. 세계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규모는 LCC 업계에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을 매각할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LCC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다"며 "합병을 통해 3사가 통합할 경우 규모면에서 타 항공사를 앞지르지만 신규 노선 운항 등 사업 다각화로 대비한다면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LG이노텍

기후변화 대응 평가 '리더십 A 등급' 획득

LG이노텍이 2023년 CDP(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하고, 2년 연속 탄소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금융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올해 CDP 평가의 기후변화 대응 부문은 전세계 2만3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10개 기업만 리더십 A 등급을 받았다.

LG이노텍은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구축, '2040 탄소중립·2030년 RE100'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녹색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적극 실행한 점 등도 전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서현 기자 seoh@

배달의민족

"외식업주·라이더와 상생" 2030년까지 2000억 투자

배달의민족이 2030년까지 외식업주의 성장, 친환경 배달문화를 위해 총 2000억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고 13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오전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오피스에서 전사 발표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안을 중심으로 준비된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커밋먼트)'을 발표했다.

이번 배민 커밋먼트의 주요 내용은 ▲함께 성장(외식업주 가게 성장과 안전망 구축) ▲배달 과정의 안전과 건강(라이더 사고 위험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이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LG, AI 강화한 올레드 QNED TV 본격 출시

올레드 업계 최다 라인업 운영 선명한 화질·풍성한 음향 제공

LG전자가 2024년형 LG 올레드(OLE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와 LG QNED TV가 13일부터 온라인 공식 브랜드숍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무선 올레드 TV(M4) 라인업이 지난해 97/83/77형에서 올해 65형이 추가됐다.

LG QNED TV의 경우 초대형 프리미엄 LCD TV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98형 제품을 더해 중소형부터 초대형에 이르는 QNED TV 풀 라인업(43/50/55/65/75/86/98형)을 선보인다.

◆AI 성능 강화한 신규 프로세서 적용 올해 LG TV 혁신의 핵심 요소는 AI 성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프로세서다. 더 강력해진 AI 딥러닝 성능은 물

론, 이를 뒷받침하는 CPU와 GPU 성능을 높여 선명한 화질과 풍성한 음향을 제공한다.

LG 올레드 예보(M4·G4 시리즈)에 적용된 '알파11' 프로세서는 기존 알파9 대비 4배 더 강력해진 AI 성능을 기반으로 그래픽 성능은 70%, 프로세싱 속도는 30% 향상시켰다. 넷플릭스, 애플TV+ 등 OTT 콘텐츠까지 실시간으로 화질을 업스케일링하는 기능은 LG TV 중 최하다.

알파11은 2채널 음원을 가상의 11.1.2 채널로 변환해준다. 알파9 대비 주변 음향을 담당하는 2개 채널이

추가돼 더 풍성한 공간 사운드를 들려준다.

2024년형 LG QNED 예보(QNED 91·90) 또한 알파7보다 1.3배 강해진 알파8 프로세서를 적용해 선명한 화질과 9.1.2의 풍성한 공간 음향을 구현한다.

/김서현 기자 seoh@



LG전자의 2024년형 LG 올레드 TV와 LG QNED TV가 13일부터 온라인 공식 브랜드숍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LG전자

KT, 물류로봇 플랫폼 개발 본격화

노바테크와 공동연구 업무협약

KT가 노바테크와 손잡고 물류로봇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KT는 노바테크와 물류로봇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

물류자동화 시스템과 로봇 관제·분석 시스템의 결합 ▲이동 로봇관리시스템(FMS)과 로봇제어시스템(RCS) 간 연동 개발 ▲ 창고관리시스템(WMS), 창고제어시스템(WCS)과 연계한 물류 엔드투엔드(End-to-End) 자동화 솔루션 개발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한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 스마트싱스 등 고효율 솔루션 전시

냉난방 공조 전시회 'MCE 2024'

삼성전자는 12~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냉난방 공조 전시회 'MCE 2024'에 참가해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회장에 약 50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주거용 고효율 히트펌프

EHS 및 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무풍 에어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무풍 에어컨, EHS 모노, 터치중앙제어기 등 6개 제품이 'MCE 2024 우수상(Excellence Award)'을 수상하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김서현 기자 seoh@



이국한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3일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 전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